



지회지부 모범답안 동부지회

특명! 동부지회를 벤치마킹하라

(사)대한제과협회의 주춧돌인 전국의 지회·지부는 각 지역적 특성에 맞는 운영으로 회원들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달은 제과업계 역사의 산실이면서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회 일에 앞장서는 지회지부 모범답안 동부지회를 들여다본다. 취재 정술이 기자·사진 주현진

청량리역과 종합대학 3곳이 위치한 동부권 최고의 교통 요지인 동대문구와 중랑구를 관할하는 동부지회는 1964년에 터를 잡은 이래로 4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지회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서울국제빵·과자전(SIBA) 포스터가 1회부터 11회까지 단 한 회도 빼놓지 않고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어 흡사 빵·과자 박물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또 다른 쪽 벽면에는 초대 이필운 회장부터 6대 조병천 회장까지 동부지회 역대 회장들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있다.

“동부의 든든한 후원자로 늘 같은 자리에서 저희를 응원해 주신답니다. 지회 발전을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렸던 선배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동부지

회가 이만큼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었죠”

동부지회 임원들이 입을 모아 칭찬할 만큼 고문들은 지회 운영의 큰 힘이 되고 있다.

체계적인 회원 관리와 지회 운영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 설립 초창기인 1960년대에는 중앙회에서 동부지회를 방문해 배워갈 만큼 동부지회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체계로 정평이 나있다. 현재도 새로 창립한 신생 지회·지부나 회원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회·지부에서 동부지회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동부지회 사무실 벽면은 어느 한 곳도 빈틈이 없을 만큼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동사무소에 걸려 있을법한 커다란 구역 지도를 통해 동부지회에 속한 회원업소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오래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있어야할 것들이 꼭 제자리에 놓인 동부지회 사무실은 세월이 무색할 만큼 깔끔하게 정리·정돈돼 있다.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라도 동부지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무실을 꾸려나가는 일등공신은 20년째 동부지회 살림을 맡고 있는 정성원 사무국장. 지난 1985년부터 동부지회와 함께한 정성원 사무국장은 인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동부의 터줏대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회원업소마다 스티커를 붙여 회원 업소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해 효율적으로 회원을 관리하고 지도합니다. 또 현황판을 매달 수정해 구역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성원 사무국장이 꼼꼼하게 관리하는 현황판은 동부를 6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알려주며 회원업소 지도와 함께 회원 관리에 한몫 톡톡히 한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세미나 활성화

동부지회는 세미나 등 기술지도에 앞장서는 등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하다. 한미제과제빵학원에서 열리는 동부지회 정기 세미나에는 항상 70~80명 이상의 회원들이 참가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미나는 주로 교육분과와 기능장과의 연계를 통해 기술 전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각 업소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을 위주로 세미나를 진행해 참가한 회원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다. 최신 트렌드를 배우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보다는 지역 주민의 입맛에 맞는 실용적인 제품 개발에 중점을 둔 세미나를 통해 실제로 인기제품을 많이 배출하고 있다.

“지역 특성에 알맞은 맞춤형 세미나를 한층 강화해 기술 향상에 더욱 힘을 예정입니다. 회원들의 제품력을 향상시키고, 고객 입맛까지 동시에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해 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김종주 지회장은 지난 3월 7일에 열린 제 36차 정기총회에서 밝혔듯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발적인 참여로 앞장서는 모범 지회

2001년부터 5년째 동부지회를 최고의 모범지회로 이끄는 김종주 지회장은 공식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행정력과 리더십을 선보여 회원들의 두터운 신임을 얻으면서 올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2004년 (사)대한제과협회 총회에서 지회를 최고의 모범지회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식양청장상을 수상하기도 한 김종주 지회장은 회원들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며 회원들을 위한, 회원들에 의한 운영 방침을 세우고 회원들 한사람 한사람의 어려움을 살피는 살뜰함으로 동부지회를 최강 지회로 이끌었다. 또한 동부지회 전임 지회장인 중앙회수석 부회장 조병천 고문은 지회 운영에 대한 명쾌한 조언은 물론 따뜻한 카리스마로 회원들의 단합을 일구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부지회 사무실에서는 매달 24일이면 어김없이 이사회가 열린다. 대부분 오후 2시로 구성된 이사 28명은 바쁜 와중에도 100% 완전 출석을 자랑하며 정시에 모여 회의를 시작한다. 서로 협회 일에 대한 사명감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누가 시키거나 재촉하지 않아도 늦거나 빠지는 사람이 없다고.

올해로 설립 41주년을 맞는 동부지회는 오랜 세월의 두께만큼이나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 있다. 20년 동안 단 한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 해온 크리스마스 케이크 나눔 행사를 비롯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돕는 일은 물론 관할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최근 동부지회의 가장 큰 변화를 꼽는다면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집행부와 함께 젊은 기술인들의 두드러진 활약상이다. 회의 때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참신하면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내놓아 동부지회의 앞날을 밝힌다. 지회 일이라면 두 손 두 발 걸고 앞장서는 선배들과 젊은 혈기로 뚝뚝 뚫힌 후배들이 함께 힘찬 발걸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나가는 동부지회의 미래는 탄탄대로일 것으로 예상된다. ☺



1 체계적인 회원관리와 지회 운영으로 모범이 되는 동부지회 임원들이 파이팅을 외치면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될 것을 다짐했다. 2 1월부터 빼놓지 않고 서울국제빵·과자전 포스터를 액자에 넣어 잘 보관하고 있는 것만 봐도 지회 살림이 꼼꼼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단 번에 알 수 있다. 3 지난 2001년부터 5년째 동부지회를 이끄는 김종주 동부지회장. 협회 중심으로 회원업소들이 뚝뚝 뚫힐 수 있도록 진두지휘하고 있다. 4 사무실을 가득 메운 지도와 현황판은 회원들을 위한 동부지회 운영의 기본이 되고 있다.

